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미 소비자 신뢰 지수 감소 크게 감소
- Bloomberg: 11월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1년여 만에 최대 증가
- WSJ: 미 셋다운 피했지만 '예산 싸움' 계속될 듯
- Bloomberg: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AI 기반 생산성에 낙관적

[미국 금융]

- Bloomberg: 일론 머스크, 연준은 '인력 과잉'이라고 비판
- Bloomberg: 주식 하락...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 발표로

[자동차]

- WSJ: 미국인, 점점 더 작은 자동차 선호한다

[오일과 원자재]

- WSJ: 유가 상승세...수요 우려는 여전
- Bloomberg: 글로벌 원자재 5개 주요 차트

[미중 관계]

- NYT: 미국, 중국의 구형 반도체 생산에 주목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혼다와 닛산, 2026년에 합병한다
- CNBC: 메타, 올해 AI에 올인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FinanceYahoo: American consumers feeling less confident in December, Conference Board says

미 소비자 신뢰 지수 감소

- 오늘 월요일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월 112.8에서 12월 104.7로 위축되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수개월 동안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지출에 자신감을 보여왔었다.
- 소비자 신뢰 지수는 현재의 경제 여건과 향후 6개월간의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수치다.
- 또한 미국인들의 수입, 비즈니스, 일자리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도 81.1로 크게 떨어졌다. 80 미만이면 가까운 시일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다.
- 하지만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규모의 약 70%를 차지한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Orders for US Business Equipment Rise by Most in Over a Year**11월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1년여 만에 최대 증가**

- 11월 비즈니스 장비를 위한 미 공장 주문이 반등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 오늘 월요일, 연방 정부는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측정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 전체 규모가 11월에 0.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보다 0.1% 높은 수치다. 10월 핵심 자본재 주문 전체 규모는 조정치로 0.1% 감소했었다.
- 3년 이상 사용한 모든 내구재 주문은 1.1% 줄었다. 상업용 비행기와 국방 지출 감소 탓이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1% 줄었다.
- 주문이 증가한 것은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회사들은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문 증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U.S. Avoided a Shutdown but There Are More Budget Fights to Come**미 섯다운 피했지만 '예산 싸움' 계속될 듯**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연방 정부 섯다운을 피하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연장 재원은 3월 14일까지 운영된다. 이 임시 법안에는 1천억 달러 이상의 재난 및 농가 지원액이 포함되었다.
- 골드만삭스는 내년 3월 섯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번 달에 섯다운이 일어났을 가능성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협상에 난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 공화당 지도자들은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천억 달러 늘리고, 의무 지출 프로그램을 2조5천억 달러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정도 규모의 삭감은 당론 법안으로는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Daly Reveals Her Bullishness for AI-Driven Productivity**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AI 기반 생산성에 낙관적**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Mary Daly는 기업들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상황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닝 머신, 로봇 처리 과정, 자동화 등 업무 처리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긴 힘들지만,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컴퓨터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ump Efficiency Co-Chief Elon Musk Calls Fed ‘Overstaffed’ 일론 머스크, 연준은 ‘인력 과잉’이라고 비판

- 트럼프가 정부효율부 책임자로 임명한 일론 머스크는 연준이 인력 과잉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에서 “연준은 어이 없을 정도로 인력 과잉 상태다(The Fed is absurdly overstaffed).”라고 밝혔다.
- 그는 현재 기업가 Vivek Ramaswamy와 함께 트럼프의 새로운 임시 부처인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부서는 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포함해 운영 예산이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연준과 12개 지역은행에선 작년 2만4천명이 근무했다. 유럽중앙은행보다 인력이 적다. 또한 다른 연방 부처와는 달리 연준은 의회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주로 오픈 마켓의 운영을 통한 국공채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Get Hit After Slide in Consumer Confidence 주식 하락...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 발표로

- 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과는 달리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 주식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도 줄어든 상태다.
- S&P 500은 0.4%, 나스닥 100은 0.3%, 다우존스는 0.7% 하락했다.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55%를 기록했다.
- 한편, 달러는 연방 정부가 섯다운을 피한 후에 상승 중이다.
- 미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즈니스 여건과 자신들의 수입 전망에 대해 덜 긍정적이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WSJ: After Years of Going Big, American Car Buyers Are Downsizing
미국인, 점점 더 작은 자동차 선호한다

- 수년 동안 미국인들은 크고 넓은 자동차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의 큰 차 선호가 줄어들었다.
- J.D. Power에 따르면 11월 평균 신차 판매 가격은 4만5천 달러를 넘어섰다. 보험료, 할부금, 수리 비용도 상승했다.
-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Edmunds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형 픽업트럭 판매는 1.9% 감소했다. 중형 SUV 판매량도 2023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 반대로 Mot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혼다와 닛산 등 일부 소형 모델 판매가 11월까지 23% 이상 증가했다. Edmunds에 따르면 올해 소형 SUV 평균 가격은 약 2만9천 달러로 중형 및 대형 SUV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WSJ 기사

[오일과 원자재]

WSJ: Oil Edges Higher After U.S. Inflation Data But Demand Concerns Persist

유가 상승세...수요 우려는 여전

-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0.5% 상승한 배럴당 73.33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6% 상승한 배럴당 69.91달러를 기록했다.
- 최근 지표에 따르면 예상보다 인플레이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 하지만 중국 수요 약세와 내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유가는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y Markets This Week

글로벌 원자재 5개 주요 차트

- 원자재

- 올해 커피와 코코아 가격이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금을 비롯한 귀금속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철광석은 중국의 수요 감소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과 식물성 기름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달걀**
- 미국 달걀 가격이 급등했다. 조류독감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 1천7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기 때문이다. Expana에 따르면 지난주 중서부 지역 달걀 가격은 201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석유**
- 2025년은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수요 증가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에 따르면 내년 석유 수요는 하루 14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
-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 수요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미전력신뢰성협회(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2034년까지 약 151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상승한 수치다.
- **석탄**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 수요가 2027년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 석탄 수요는 2024년보다 약 1% 높은 89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지역에서 석탄은 값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중 관계]

NYT: U.S. Takes Aim at China's Production of Essential Computer Chips 미국, 중국의 구형 반도체 생산에 주목

- 오늘 월요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구형 컴퓨터 반도체 생산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철강, 선박, 태양광, 전기차 산업 분야를 장악한 것처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바이든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반면, 구형 반도체에 대한 제재는 별로 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기계와 가전제품, 심지어 군사 무기에도 사용되는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다.
-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32년까지 전 세계 기초 반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일부 반도체 부문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Y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Honda, Nissan Plan to Create World's No. 3 Automaker in 2026 Merger****혼다와 닛산, 2026년에 합병한다**

- 혼다와 닛산, 두 회사가 2026년에 회사를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주도할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동 연구와 비용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두 회사가 합병하면 도요타, 폭스바겐을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가 된다.
- 혼다 CEO Toshihiro Mibe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개발에는 높은 비용이 든다.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생산 라인 공유, 동일 부품 대량 구매, R&D 프로젝트 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정부는 두 회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 자동차공업협회(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일본 노동 인구 약 8%가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전체 수출의 20%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Mark Zuckerberg went all in on Meta's AI strategy this year. The pressure builds in 2025**메타, 올해 AI에 올인하다**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올해 AI 전략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메타는 지난 4월, 올해 AI 투자를 1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 저커버그는 “AI 기술은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ROI(투자 수익률)를 보여줄 것이다. AI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메타의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Salesforce의 AI 부문 CEO인 Clara Shih를 새로운 비즈니스 AI 책임자로 임명했다. 메타는 내년에 기업 단위 고객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 분석가들은 메타가 2025년에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Jefferies의 분석가들은 메타를 2025년 생성형 AI의 승자로 선정했다.
- Truist Securities의 분석가들은 메타의 AI 디지털 비서가 구글의 검색 엔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25년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미국이 관세 부과해도...중국, 제3국 환적 통해 우회
"美 수납장업계 "환적은 야바위...값싼 중국산에 美기업 입지 축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제3국에서의 환적 등을 통해 원산지를 속이는 식으로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납장이 말레이시아 환적을 거쳐 미국으로 공공연하게 수입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